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0년도 표어 ☉

하나님을 기쁘시게 (요8:29, 시37:4)

☉ 행동지침 ☉

- 1.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전하는 교회
- 2. 성수주일을 철저히 실천하는 교회
-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의 모범이 되는 교회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시편강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 (시편 149:1-9)

Praise the Lord with a new song (Psalm 149:1-9)

할렐루야 시 중 네 번째 시인 본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승리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노래하는 찬양시입니다.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Jong-yun Lee (Senior Pastor)

Psalm 149 is the 4th Hallelujah psalm in which the psalmist gives praise and thanks to God for the victory that He had given to the Israelites.

1. 여호와께 찬양하는 성도

성도는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양해야 합니다. 새 노래란 새 것이란 개념이 아니고 새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연구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은 객관적인 진리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를 구속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적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고,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찬양은 그치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1. The saints who praise the Lord

All saints must praise the Lord with a new song. A "new song" doesn't mean singing new content, but singing and praising the Lord with a new mind.

We must know who God is in order to praise Him. However, knowing God through a Bible study only means that we come to know objective truth. We need to experience this truth subjectively, as we discover the love that God gave to us in Jesus Christ, and trust by the Spirit that He died on the cross for us, came to life again for us, and even now redeems us and is with us. When we come to know God in this way, we will continue to praise the Lord without ceasing.

2.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 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되심으로
- ②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심으로
- ③ 하나님은 구원주 되심으로

위의 세 가지 사실을 아는 것은 영적 지혜의 시작이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찬양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찬송은 이것들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2. Rejoice in our God

There are several reasons why God's people must continually give thanks to God:

- (1) Because He is our creator.
- (2) Because He is our King.
- (3) Because He is our savior.

When we come to know these three reasons, we are beginning our spiritual knowledge. These are good reasons to praise the Lord as His people. And our praises must be full of them.

3. 승리의 노래

승리의 노래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일부가 됩니다. 본문 6절은 분명 하나님 백성의 승리를 예견하고 승리의 찬양을 합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전쟁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군인이 되는 것은 가치없는 일이 아닙니다. 6절의 칼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교회나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며, 우리의 무기는 세상의 무기가 아니고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고후 10:4)인 것입니다. 본편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정복자가 될 것입니다.

3. Victorious Hymns

Hymns of victory should be a part of the worship service. Verse 6 of this psalm clearly foresees the victory of God's people and praises God as a result.

Because we live in a corrupted world, war is inevitable. However, this does mean that God's people should take up arms, and become soldiers. The power of the sword in verse 6 is not intended for the church or a particular person in the physical sense. Our weapons are not the weapons of the world, but "God's divine power is to demolish any stronghold" (2 Corinthians 10:4). In other words, this psalm teaches us about spiritual war. We must become conquerors in Christ, who have gained victory over the world.

4. 새 노래로 여호와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새로운 체험은 우리로 하여금 새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국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면서 이 시를 썼습니다.

4. Praise the Lord with a new song

Our new experience of God's grace makes us sing a new song. When the Israelites came back to their nation with a renewed view of God's grace, they wrote this psalm reflecting their new experience of His goodness.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날마다 새 노래를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My beloved Christians!
By meditating on God's grace, whether you are healthy or sick, joyful or sad, I sincerely pray that you and I will sing a new song in the name of Jesus Christ.

■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 TV : 케이블 CH 42(CTS, 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1910년 에딘버러 세계선교사대회 100주년 기념 2010 한국대회 은혜중에 마쳐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 속에 '1910년 에딘버러 세계선교사대회 100주년 기념 2010 한국대회'가 7월5일 부산대회를 끝으로 마쳤다.

6월 22일 개회 예배로 시작된 2010 한국대회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Witness Jesus Christ

Today) (마24:14)는 주제로 서울, 인천, 부산에서 열렸으며, 이 기간 동안 세계 선교의 어제·오늘·내일에 관한 논문이 100여편 발표되었다. 특히 대회를 마무리 하는 부산대회에서 이종윤 목사(에딘버러 한국대회 대표회장)의 설교가 있었다.



제28학기 서울성경대학 · 하반기 열린프로그램 8월30일(월) - 마가복음반 시작으로

서울교회 성도들과 이웃주민들을 위한 2010년 하반기 열린프로그램 일정이 확정되었다.

우리교회 열린프로그램은 성도들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성경공부를 통하여 신앙을 확립하고, 말씀이 왕성하여, 내적으로 복음적인 신앙을 견지하고, 외적으로는 복음전파가 힘을 얻어, 서울교회 부흥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한편 이웃주민들도 여가선용을 하며 깊이 있는 성경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매년 2차례 개강하고 있다.

이번 하반기 열린프로그램은 8월 30일(월) 오전 10시 제 28학기 서울성경대학 마가복음반(지도: 노현상 목사)을 시작으로 11월 7일(월)까지 10주간 계속될 예정이다. 우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과목 이상씩 수강하여 말씀에 든든한 기반을 둔 성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 각 과정별 강의 일정은 다음의 표와 같다. (수강료: 과목당 10,000 원)

강좌	요일 및 시간	담당	장소
마가복음반	월 오전 10:00-11:00	노현상 목사	602호
에스더반	화 오전 6:00-7:00	박광일 목사	602호
출애굽기반	목 오후 7:30-8:30	정수길 목사	602호
요한계시록반	금 오전 6:00-7:00	한상은 목사	602호
성경통독반(30주)	목 오전 10:30-12:00	문정훈 목사	602호
교사 양성반	주일 오후 3:20-4:30	교역자 전체	609호
주중 교사 양성반	금 오후 7:00-8:00	교역자 전체	503호
교구일꾼 양성반	주일 오후 3:20-4:30	교역자 전체	607호
주부대학	화 오전 10:00-오후 1:00	박종민 목사	601호
살렘 경로대학	목 오전 10:00-오후 1:00	서명철 목사	101호
세계선교대학	월 오후 7:00-8:30	장석남 목사	602호
마리아학교	목 오전 10:30-오후 12:30	김은숙 전도사	706호
영여성경공부반	토 오전 11:00-12:00	조슈아 조 목사	603호
서울음악학교(10주간)	주일 오후 1:30-3:00 (9/5 - 11/7)	박정선 장로	601호
결혼예비학교(5주간)	주일 오후 12:40-1:40 (9/5 - 10/3)	한상은 목사	905호
수화교실 중급반(12주간)	목 오후 7:00-8:50 (9/2 - 11/18)	임규현 목사	606호

3/4분기 섬김위원 추가임명

<교육위원회>

· 유아부: 최근우 · 유치부: 김현주1 · 에바다부: 조미영
· 중등부: 권성열/안준홍 · 새가족부: 김영희3

<찬양위원회>

· 가브리엘 찬양대: 김수지 안명심 유미영 이금란 최유진 한혜빈 윤경 윤자영 이영철 이인표
· 할렐루야 찬양대: 조경순 나기태 이고은 최순례2 박종훈 서준호1 문철 최환영
· 임마누엘 찬양대: 김인영2 신재규

· 베들레헴 찬양대: 박종훈 정동호

· 예루살렘 찬양대: 김영경3 박경주 이한나 김인준1 최재우

· 호산나 찬양대: 권영철 백기선 · 시온 찬양대: 정다운2

· 은빛 찬양대: 박인규, 박석현, 강종자

· 그레이스 핸드벨 콰이어: 김가현 김명석 이인영1 이호준 박지혜 홍하연

<교구위원회>

· 2-17다락방: 윤금자/조인순1 · 16-23다락방: 최항숙/정민자

몽흐바타르 바타르 목사 인턴훈련 받는다



몽골 제일교회 몽흐바타르 바타르 목사가 우리교회에서 목회 훈련을 받게 된다. 몽흐바타르 바타르 목사는 1976년 출생, 연 합신학교(United Bible College) B.Th. 과정을 수료하였으며 03

년 목사 안수를 받고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몽골 복음주의협의회 총무를 역임, 09년 12월25일 울란 바타르 제일교회 목사로 재직 중이다.

홍오르줄 사모와 슬하에 4자녀를 두고 있으며 7월20일까지 서울교회에서 부목사들과 목회 및 예배와 교육 프로그램을 실습하게 된다.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에서 몽골에 최초로 세운 몽골제일교회가 한국을 대표할 만한 서울교회에서, 개척주의 신학과 신앙의 본이 되는 목회원리를 배울 수 있도록 성도들의 많은 성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예루살렘 · 시온 찬양대 피아니스트 임명

교회는 예루살렘 찬양대 피아니스트와 시온찬양대 반주자를 새로 임명하였다. 예루살렘 찬양대 피아니스트로 임명된 이승민 선생은 이스턴 미시간 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하고, 동 대학원에서 반주학을 전공하였다.

시온 찬양대 피아니스트로 임명된 변지원 선생은 2007년 서울대학교 기악과(피아노 전공)를 졸업하고, 현재 한국 예술 종합학교 예술 전문사 반주전공으로 2년에 재학 중이다.

새가족 환영회

7월17일(토) 오후4시30분 - 801호

2010년 제2차 새가족환영회가 7월17일(토) 오후 4시30분 801호에서 열린다. 2010년 3월21일 이후 등록한 새가족과 그 이전 등록한 분들 중에도 이번 새가족환영회에 참석하지 않은 새가족 모두를 초청한 가운데 열린다. 오후 4시30분까지 801호에서 모여 찬양으로 준비한다. 서울교회 등록된 새가족들이 하나 되고 잘 정착하여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기도한다.

2010년 6월 학습 · 세례식 거행

지난 6월23일 수요일 12부 예배 시 6월 학습, 세례식이 있었다. 금번 세례/개종/입교/학습/유아세례자는 다음과 같다.

<세례자>

김경표 김민석 문남이 박석원1 방승후 서욱자 이도성

<입교자> 임하람

<학습자>

김세준 김창욱 변영주 서주희 신하근 안시예나 이수지 임희경 정정혜 조명순 최윤선 함희경 허 훈1

<유아세례자>

김예음 김지유1 서은울 양태양 오선아 이예은1

사랑의 실천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의 대잔치

최광성 집사 (제1스데반회 회장)

지난 주 7월3일(토) 서울교회 만나홀에서는 스데반회가 주관하고, 70인 전도대에서 협력하여 “어르신을 위한 사랑의 대잔치”를 가졌습니다. 70세가 넘으신 우리 교회의 어르신과 교회 주변에 사시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섬김과 전도를 실천하는 사랑의 장이 있었습니다.



1, 2, 3부로 나누어 진행된 프로그램 1부 감사예배 순서중 이종윤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어르신들을 지금도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말씀과 함께 처음으로 서울교회에 나오신 분들을 위한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결신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을 보며 심겨진 씨앗이 어떤 열매로 나타날지를 기대하며 물주는 일에도 게으르지 말아야 하겠다는 다짐을 하여봅니다.

이어진 2부에서는 경직된 몸을 체조로 풀어 드리고 성경퀴즈와 특송, 해금 연주를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며, 함께 찬양하며, 더불어 살고 섬기며 사는 삶이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점심으로 준비한 삼계탕을 드시고 헤어질때 조그마한 선물을 받으시며 초대하여 준 것 만으로도 감사한데 선물까지 주신다니 고마워 하시는 모습에서 더 풍성하게 쟁겨드리지 못한 우리들의 송구한 마음을 전합니다.

만나홀이 차고 넘치게 오신 어르신들을 보며 주님은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한 것 보다 더욱 풍성하게, 더 은혜롭게 이루어 가심에 놀라울 뿐입니다. 기대와 염려로 시작하였지만 부족함 없이 넘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고난의 보자기 속에 축복이...

서중숙 집사 (13교구)



장로 집안의 딸로 태어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 것은 남편의 적극성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자아가 강하고 남

아선호사상이 뚜렷한 사람입니다. 그런 남편을 전도할 목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해 늦둥이 아들 종민이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 종민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되던 해 ‘뇌혈관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종양의 위치가 신경과 맞닿아 있어 수술하면 오른쪽 팔, 다리 장애와 말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결과가 나와 약을 복용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게는 일주일에 4번 장소도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쓰러지는 아들을 보며내 마음은 갈가리 찢기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남편은 집안의 제사문제로 아들을 교회에 못나가게 했었습니다. 하지만 종민이가 아프면서 교회 가는 것을 허락하였고, 그때부터 시어머니가 하나님을 영접하였고, 기도하던 대로 제사도 추도식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남편은 여전히 냉담했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

다. 늘 불평뿐이었고 믿음이 없으니 때로는 내게 폭언도 서슴지 않으며 믿음에 관해서만은 고집스러웠습니

다. 방을 비롯해 우리 교회 각 기관들이 우리 가정과 아들을 위해 연합하여 정말로 많은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이분들의 헌신적인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의 평정과 기쁨을 되찾았고 소망이 넘쳤습니다. 더욱이 고난의 보자기 속에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목사님의 말씀이 어찌나 힘이 되던지요...

1년 전 방사선 치료를 받았지만 별 효과가 없고 계속 종민이가 쓰러지기 때문에 의사 분들은 다시 수술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주 쓰러지던 아이가 올 2월에 한번 쓰러지고 지금까지 쓰러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의사 분들은 일시적일 수도 있고 약 때문이라고 했지만, 사실 종민이가 약 먹는 것을 힘들어해서 약도 줄인 상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학교에서 2박3일의 수련회도 무사히 다녀왔습니다. 종민이가 혼자 다닐 수 있다는 것도 새삼 놀랍고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무엇보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고난이 있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니 감사와 찬양이 나오고 평안이 왔습니

다. 오늘도 저의 기도는 중2 된 종민이가 약을 먹지 않고도 완전히 낫고 아픈 가운데 맞이한 사춘기를 지혜롭게 잘 보내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과 남편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모든 환우들에게 기쁨을, 예수 믿어 꺾박 받는 가정에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절제 정신을 실천하며

태안해변의 기름 냄새가 아직도 생생한데 멕시코 만의 유전 분출이 세계지도에 검은 바다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끝 모르는 인간 욕망의 에너지 전쟁이 부른 또 하나의 재앙입니다.

서울교회 예배실의 절제된 냉난방 운용에 찬사를 보냅니다. 이때에 한국교회, 서울교회는 ‘여름에 반팔 입기, 겨울에 내복 입기’를 검약 경건한 기독교 문화 실행 운동의 하나로 주도할 것을 제의합니다.

2010년 여름 절제 정신을 실천하기를 기원하는 집사가 올립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

주일 저녁 찬양예배를 마친 후 엘리베이터가 8층으로 올라갑니다. 경비집사님들이 바퀴가 달린 큰 통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바로 주일 하루 동안 우리가 먹은 음식의 잔반을 가지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8층 식당(만나 홀)에서만 각종 음식물을 드시도록 방침을 정한바 있습니다. 그것은 음식물 쓰레기와 부스러기 때문에 발생하는 각종 해충(개미, 바퀴벌레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방침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실에서 음식을 먹고 쓰레기가 그 방에 그대로 남아있다면 이 더운 여름철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귀여운 자녀들이 해충에게 물리는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자녀와 나 자신의 건강과 교회의 질서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낭비하고 있는 소중한 자원은 바로 나의 자녀들이 앞으로 사용하여 할 자원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우리의 잘못으로 그들이 사용할 것이 없다면 그 책임을 누가 감당해야 할까요? 우리 모두 깊이 생각하고 나와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 그리고 깨끗한 교회 환경을 위해 절제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편집부

천국시민양성 - 대학부수련회 초대이름

성령의 폭포수를 만끽합시다!

· 7월21일(수)~24일(토) / 아가페 타운

이강진 집사
(대학부부장)

예수님은 홀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자주 기도하셨고, 때로는 제자들을 데리고 변방으로 가셔서 특별 훈련을 시키시기도 하셨습니다.

한번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북쪽 헤르몬

산 기슭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셔서 수련회를 하시던 중 베드로에게 “넌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던지셨고 베드로는 영안이 열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유명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수난과 부활, 그리고 영광스러운 재림에 대한 비밀을 비로소 알려 주시면서 십자가를 지는 희생을 말씀하셨습니다. 이후로 베드로처럼 수련회를 통하여 특별하게 성령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여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 수 많은 젊은이들이 나왔습니다.

수련회는 일상적인 장소와 틀을 벗어나 열린 공간에서 집중된 말씀과 기도, 잘 짜여진 프로그램을 통하여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젊은이 여러분! 청평 호반, 완벽한 시설을 갖춘 아가페 타운에서 예수님과 함께 특별한 체험을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은 자신의 지식이 아니라 성령

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라고 하셨듯이 수련회에서 성령을 체험하십시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소경이 보고 귀먹은 자가 듣는 기적이 올 여름 아가페타운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혼자만 오지 말고 아픈 친구들을 침상 째 메고 오십시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속담도 있듯이 친구 덕에 구원을 얻은 자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친구를 데려오는 사람에게는 참가비 할인혜택이 있고 새 친구는 참가비 없이 3박4일 동안 성령의 폭포수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독려하여 다시 오지 않을 이 기회를 반드시 잡아 승리의 삶, 성공한 삶을 자녀에게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흐-! 벌써 성령의 폭포수로 시원하게 적셔지는 것 같습니다.

상반기 전도상 시상

2010년도 상반기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많은 분들이 서울교회에 등록하였다. 70인 전도대에 의한 전도등록 262(50.2%)명, 서울교회 성도들에 의한 전도등록 95(18.2%)명, 본인 스스로 등록 165(31.6%)명으로 총 522명이 등록하였다.

70인 전도대 우수 전도팀으로는 **박이선 권사 조(70명), 임명숙 집사 조(63명), 최성희 집사 조(22명), 전하미 집사 조(19명), 이유희 집사 조(16명), 박길희 집사 조(14명),** 개인 전도 우수자로는 **오정수 장로(9명), 박광일 목사(5명)**이며, 이 외에 많은 70인 전도대원들과 성도들의 전도와 기도에 힘입어 풍성한 전도의 열매를 맺었다. 이에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시상을 한다.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으며, 구내 서점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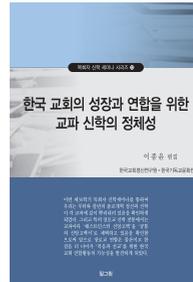
소정의 격려품(이종운 목사 저서)이 부상으로 준비되어 있으니 수령하기 바란다.

강수남 권태수 권영월 김경숙 김규희 김동진 김명옥 김미성 김보경 김선희 김성심 김소애 김수원 김수정 김수진 김애순 김연화 김연화 김영애 김용애 김은희 김정순 김찬진 김태영 김혜경 김희순 남현주 노정숙 노진아 박광일 박길희 박명희 박문자 박미경 박분옥 박순복 박시향 박영애 박이선 박정순 박정임 박종건 서순희 서현정 소선자 안미경 양춘경 오은수 오정수 우원향 위성남 유경희1 유년부 대곡초 전도팀 유요종 유윤상 윤계진 윤석호 윤숙지 윤주현 윤현미 윤혜전 이미경 이민선 이삼순 이소연 이양선 이영미 이영수 이영숙 이옥심 이유희 이지동 이창희 이태승 이현주 임명숙 임선영 장동숙 전광환 전미애 전숙향 전하미 전현주 전화진 정기자 정미애 정민교 정민자 제영진 조상환 조웅기 진경자 최금봉 최성희1 최성희3 최유진 추현숙 한민아 한정옥 함정희 허형숙 홍성혜 황정아

특별찬양

오늘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맑고 고운 천사의 소리로 노래하는 무지개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으로 드린다. 연세대학교 교회음악과와 동대학원에서 합창 지휘를 전공한 강영모선생의 지휘로 ‘아이들이 찬양하라(F.Mendelssohn)’, ‘비추소서(Rollo A. Dilworth편곡)’ 등 네곡을 김동아 선생의 피아노 반주로 하나님께 드린다.

■신간안내■



‘한국교회 갱신연구원’이 진행해온 ‘목회자 신학세미나 시리즈 제 10권’이 발간되었다. “한국교회의 성장과 연합을 위한 교파 신학과 정체성”이란 주제로 총 384페이지 신국판, 가격은 7,500원이다. 구입은 서적부에서 하기 바란다.

■동정

- 이종운 목사는 15일(목) 1910 세계선교사대회 2010 한국대회 평가회를 소집한다.
- 피선 : 임점택 성도(10교구)는 서울교원총연합회 회장에 피선되었다.
- 무지개회 회장으로 한춘홍 권사가 피선되었다.
- 영어예배부 Joshua Yun전도사가 개인사정으로 사임하였다.
- 임명 : 유태서 집사(6교구)는 7월4일자로 우리교회 사무국장으로 섬기게 되었다. 지난 2009년 11월21일부터 사무국장 서리로 섬기고 있었다.
- 수상: 2010년 6월26일(토) 과천교회에서 개최된 제23회 강남협의회 어린이대회에서 본교회 유년부 박승현(3학년) 글짓기 부문 동상, 소준(3학년) 그리기 부문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 주간식당봉사: 루디아전도회(7.11) 뱀뱀전도회(7.18)
- 금주의 식사 : 황남수 집사, 진교숙 집사 가정 (범사에 감사하며)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 일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영 어 예 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 요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요일기도회	오후 8시3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서울교회, 우리가정 되게 하소서.
2. 세계에 흩어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3. 7월 10일 장로교의 날 행사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4. 1교단 다체제 한국장로교회 거듭나기 위하여

■교회오시는 길

